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창의학교' 교육생들, 버클리음대 장학생 선발

정수연·정결·정우영·신원주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설렙니다. 전남의 예술적 성격을 음악으로 표현해 고향 산천의 자연을 노래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인 보스턴 버클리음대에 학비 전액 4년 장학생으로 합격한 정수연(23·베이스)씨를 비롯해 정결(피아노·4년 학비 전액 장학생), 정우영(기타·4년 학비 50% 장학생), 신원주(드럼·학비 30% 장학생) 등 4명이 버클리음대에서 수학하게 됐다.

이들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창의학교 전남' 교육생으로 버클리음대 한국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이번에 합격한 4명의 연주자들은 아동 청소년 때부터 피나는 노력과 가족들의 헌신을 뒷받침으로 경향 실용음악 콩쿠르 대상, CBS 전국 학생 실용음악 콩쿠르 전체 대상, 용인 재즈 페스티벌 우수상, 대구국제재즈축제 실용음악 콩쿠르 대상 수상 등 전국 단위 각종 콩쿠르 및 콘서트 등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베테랑들이다.



왼쪽부터 신원주, 정결, 정수연, 정우영.

미국 버클리음악대학교에 합격한 4명은 2024년 9월 입학 예정으로 유학 준비 중에 있다. 강성취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의학교 전남'의 참여 학생



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줘 뿌듯하다"며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송기춘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전남대 강연

송기춘(사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 위원장이 전남대에서 강연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전 위원장은 전남대 5·18 연구소(소장 민병로) 초청으로 7일 옹봉관에서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군인 사망사고 진상규명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송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통령 소속 군사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으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군 사망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독



립적인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과 (사)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수년간 여러 매체에 기고해온 글들을 모은 글은 모은 '사람의 사람을 위한 법' 등이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박경환 교수, 도시지리학회 회장 선출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박경환(사진) 교수가 한국도시지리학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박 교수는 한국도시지리학회 학술부장, 총무부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주요 저역서로 '도시지리학개론'(공자·



2020)과 '경제지리학개론'(공역·2021) 등이 있다.

한국도시지리학회는 지리학을 비롯해 도시와 국토개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둔 국토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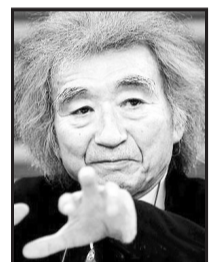
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지난 1997년 창립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세계를 지휘한 일본 마에스트로 오자와 세이지 별세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사진)가 지난 6일 도쿄 자택에서 심부전으로 별세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향년 88세.

1935년 옛 만주국에서 태어난 오자와는 1941년 일본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며 피아니스트를 지망했다. 1955년 도쿄에 있는 도호학원 음악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지휘를 배웠으며 1959년 프랑스로 건너가 브람스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등 세계적인 명지휘자에게 지도받은 뒤



1973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5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보스턴 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그는 2002년까지 29년간 보스턴 교향악단의 최장수 상임 지휘자로 활약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이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빈 국립오페라 음악감독을 지냈다.

그는 1993년과 2004년 두 차례 빈필하모닉과 함께 내한 공연을 펼쳤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광주전남본부, 희망나눔 난방비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본부)는 최근 화순읍행정복지센터에서 'MG희망나눔 난방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신영열)이 기획한 이번 사업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운영이 어려운 지역 사회 복지시설 1곳과 취약계층 15가구에 800만원 상당 에너지 비용을 지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열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김미남 전 복지부장관 정책정보서관 조선대 대외협력 외래교수 임명

조선대 대외협력 외래교수에 김미남(사진)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정보서관장이 임명됐다.

김 전 정책정보서관장은 향후 조선대 대외협력 외래교수로서 대외재정사업 유치와 각종 국제·국내 행사를 널리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 출신인 김 전 정책정보서관은 조선대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땀다.

현재 광주mbc '김미남의 호남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위원, 조선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정보서관, 청와대 행정관, 광주시 서구청 정책개발연구원 등을 지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TV 유치원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
| 8 | 25 아침마당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40 맨 인 블랙 스페셜 50 좋은아침 |
| 9 | 30 KBS 뉴스 |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 55 SBS 10 뉴스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 45 뽀뽀 좋아좋아 | 30 살맛나는 오늘 |
| 11 | 05 동행(재) | 0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재) | 15 헬로킴지 동물교실(재) 45 주니토니이야기(재) |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 12 | 00 KBS 뉴스 12 | |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
| 1 |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송아지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30 꿀꿀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스튜디오 K | 25 이맛에 산다 55 2시 뉴스 외전 | 55 닥터 365 |
| 2 |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 | | 00 뉴스브리핑 |
| 3 |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 00 KBS 뉴스타임 15 코드네임(재) 30 TV 유치원(재) | 55 기분 좋은 날 | |
| 4 | 00 사사건건 |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55 5 MBC 뉴스 | 00 백슬라 스페셜 55 닥터 365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 00 한국인의 밥상(재) | 10 트로트 클래스 3 스페셜 |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
| 6 | 00 6시 내고향 |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 05 분방을 보자 |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
| 7 |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 50 피도 눈물도 없이 |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 50 SBS 8 뉴스 |
| 8 | 30 우당탕탕 패밀리 | 30 월드 24 55 슈퍼맨이 돌아왔다 | | 30 KBC 8 뉴스 |
| 9 | 00 KBS 뉴스 9 | | 00 안코르 VR다큐 너를 만났다 열셋, 열여섯 |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
| 10 |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 1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 | 00 솔로동창회 특연 | 20 감심장VS |
| 11 | 30 영상앨범 산(재) |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키링 건(재) | 30 100분토론 |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
| 12 |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 55 TV예술무대 | 20 재벌X형사(재) |

EBS1

| | | |
|------------------|----------------------|------------------------|
| 05:00 왕초보 영어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17:40 그린조끼 구조대 |
| 05:30 클래스 e | 11:20 세계테마기행 |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
| 05:50 한국기행 | 12:00 EBS 뉴스 12 | 18:1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
| 06:10 세계테마기행 | 12:10 귀하신 물 | 18:40 EBS 뉴스 |
| 07:00 미스터리야 |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 19:00 한국의 둘레길 |
| 07:15 빅 블루 |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 19:20 고향민국 |
| 07:30 출동! 슈퍼월스 |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 19:50 극한직업 |
|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 20:40 세계테마기행 |
| 08:00 당동명 유치원 |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 <와일드 몽골-축한의 땅, 다르하드> |
| 08:20 한글용사 아이아 |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 21:35 한국기행 |
| 08:35 뽀뽀뽀 뽀로로 | 16:40 당동명 유치원(재) | <실산 기행 2부 운두령에서 곰배령까지> |
| 08:50 사샤 앤 마일로 | 17:00 페파 피그 | 21:55 EBS 다크프라임 |
| 09:20 인간과 바다 |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 22:50 건축탐구 - 집 |
| 10:10 한국의 둘레길 | 17:20 뒤죽박죽섬의 빅포털리 쇼츠 |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 10:30 한국기행 | 17:25 미스터리야 | 24:00 클래스 e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3일(음 1월 4일 丁未)

| | | | |
|---|--|---|--|
| 子 | 36년생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화합이 좋다. 48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라. 60년생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히 살펴야 하니라. 72년생 가능한 일이나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84년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증론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96년생 마음을 비우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아라. 행운의 숫자 : 37, 80 | 午 | 42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니 아니다 싶으면 미련을 버리고 과감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54년생 한뼘만으로는 불완전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66년생 잊지않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다. 78년생 실제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90년생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02년생 길조가 깃드는 판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22, 99 |
| 丑 | 37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49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61년생 순간의 선택이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3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85년생 구상만 잘한다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97년생 현재 상태대로만 진행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5, 52 | 未 | 43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55년생 인위적이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67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연하다. 79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91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03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3, 69 |
| 寅 | 38년생 근본적인 원칙을 중시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조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62년생 객관성을 일탈한다면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하강한다. 74년생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하더라도 철저히 절제해야만 한다. 86년생 결심이 의외로 미진하겠다. 98년생 위험 요소가 많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57, 93 | 申 | 44년생 건전한 습관의 반복이 성공의 길로 이끄는구나. 56년생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용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맞다. 68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고 본다. 80년생 소중한 사람이나 정보를 절하게 될 수 있다. 92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04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히리라. 행운의 숫자 : 48, 98 |
| 卯 | 39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51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63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려는 것도 괜찮다. 75년생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87년생 마음만 먹으면 풍도 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라. 99년생 애로 사항이 보이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5, 54 | 酉 | 45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되었다. 57년생 하소연할 곳을 찾게 되는 역운함이 보인다. 69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세이다. 81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93년생 작은 것을 가려다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05년생 기회가 올 것이니 즉시 실행을 옮기자. 행운의 숫자 : 33, 60 |
| 辰 | 40년생 높은 산에 올라간 격이니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 52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리라. 64년생 소신껏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76년생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니라. 88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로다. 00년생 천우인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49, 92 | 戌 | 46년생 앞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58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70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82년생 순리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94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06년생 굶어지지 않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4, 74 |
| 巳 | 41년생 장소와 시간의 구분을 철저히 하자. 53년생 주변의 개별적 의사를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쫓대를 갖고 밀어붙여라. 65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77년생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가 되었다. 89년생 외관은 보잘것없더라도 실속은 있으니라. 01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13, 73 | 亥 | 35년생 집착을 버린다면 훨씬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47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59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쓸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71년생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회생하여 기쁘겠다. 83년생 연유하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95년생 소홀함이 없어야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05, 97 |